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11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양*지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826 898 1126 1352" data-label="Image"> </div> <p>추천자: 최*민</p> <p>10월 11일 첫 번째 북클럽 회합을 했다. 모두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열정을 갖고 토의에 임했다. 특히 두껍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읽고 온 모습이었다. 7명 모두 “참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해설까지 꼼꼼히 읽었으며, 그 외에도 유튜브 영상, 인터넷 자료조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책에 대해 깊이 이해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주제로 철학, 연애, 사랑,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현상을 바라본다. 아울러 북클럽 멤버 7명 모두 다 다른 과였기에 회합 내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중 각자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혹은 키워드를 제시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했다.</p>							

1-1 소설 속 등장인물 “토마시”,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에 대하여

권*재

이야기는 토마시와 테레사의 만남, 토마시의 과거 소개로 시작한다. 토마시는 과거 부인과 아들, 토마시의 부모와도 관계를 단절하고 끝내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았다. 따라서 토마시는 ‘에로틱한 우정’이라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만나곤 한다. 토마시는 소설 상에서 ‘가벼움’을 나타내는 인물로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질투하고 자신만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토마시로부터 다른 이들과 같은 보편적인 키치’와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테레사는 그런 토마시를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존재하고 싶어 한다. 이는 그녀의 꿈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테레사는 토마시에게 있어 다른 모든 여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저 하나의 몸짓과 육체일 뿐이라는 박탈감을 느낀다. 이때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요소들이 소개된다. 테레사와 토마시, 우연과 운명, 영혼과 육체, 베토벤의 4중주, “Es muss sein”, “Muss es sein?”까지 소설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이다. 이들 모두 각각 무거움과 가벼움을 의미하며, 소설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키치’(Kitsch)라는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박*영

처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던 건, 고등학생 때였다. 당시 소설 속 테레사는 한심해 보였고, 토마시는 재활용도 못 할 쓰레기에 사비나는 생각 없는 인간 정도로 보여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공감하지도, 애착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때 내 세계는 확고부동한 의미가 있었으며, 그 의미가 곧 정답이라고 확신했다. 개인적으로 테레사와 토마시, 사비나, 프란츠 이들의 삶은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소설의 매력은 바로 이런 지점에 있는 것 같다.

이*경

토마시와 사비나는 인생을 가볍게 살고자 하고, 프란츠와 테레사는 인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자 했다. 여기서 토마시는 감정과 물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동시에 사랑으로 얻는 행복과 여성 편력으로 인한 비극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토마시의 이야

기를 듣고 우리가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연과 필연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고, 인생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 짧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쿤데라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 수 있어, 과연 이러한 삶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썩을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지 긴 시간 생각했다. 소설의 주인공 토마시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도 그 가벼움이 동시에 그의 삶에 무게를 부여한다는 역설적인 측면을 보였다. 이는 우리가 삶을 다룰 때 느끼는 모순과 역설을 통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또한, 소설은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을 형성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소

여러 가지 주제 중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다. 토마시는 테레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를 강물에서 건져진 어린 아이로 보았다. 그렇다, 토마시가 처음 테레자에게 가진 사랑은 바로 동정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동정이 사랑의 종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니체가 말하길 "그의 고통이 그에게 고유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고유한 것이다. 우리가 동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서 제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뿐이다." 이라 말했다. 이처럼 나는 동정이란 상대방과 일치되는 감정이 아닌 개인적인 본인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 속의 토마시의 행동이 날 동정이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설득하고 있었고, 나는 토마시의 행동들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사랑에 이른 모습을 보고 동정이 사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게 되었다. 밀란 쿤데라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은 동정이며 사랑은 각각의 원인에 의해 시작되는데 가장 순수한 감정에 기인한 사랑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토마시는 처음에 테레자를 동정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 후에는 육체를 사랑했고 마지막에는 그녀를 진정한 이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토마시 그는 누구보다 가벼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본인이 누구보다 만족하며 살았던 가벼움을 버리고 그가 테레자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녀를 동정으로, 그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최*민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들의 극단성이라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무거움을 지향하는 테레자와 극단적인 가벼움을 지향하는 토마시, 토마시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가벼운 인물이며 극도로 키치를 경멸하는 사비나. 그리고 그 누구보다 키치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프란츠.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은 각자 네 가지 방향에서 극단에서 있다. 동시에, 이 네 등장인물들 모두 그들의 삶 마지막에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테레자는 자신이 오히려 토마시의 삶을 망쳐버렸단 생각에 후회했고, 토마시는 결국 테레자를 따라 무거운 사랑을 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인 키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비나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키치에 대한 갈망에 후회한다. 역설적으로 키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그 누구보다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프란츠 역시도 그 누구보다 키치를 선망했지만, 사망 직전 시위에서 키치의 허망함과 무의미를 실감한다. 밀란 쿤데라가 이 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내려 한 점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어느 한 쪽의 방향만이 정답이 아니며,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실은 서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무거움'을 지향하며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2 주요 키워드와 그 이유에 대한 각자의 생각

> 첫째 “무거움과 가벼움”

권*재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요소들이 소개된다. 테레자와 토마시, 우연과 운명, 영혼과 육체, 베토벤의 4중주, “Es muss sein”, “Muss es sein?”까지 소설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이다. 본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존재, 삶의 의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einmal ist keinmal” 한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 없이 삶의 의미와 ‘나’라는 존재에 대해 무게를 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가치, 우연적인 요소 등에도 가치를 부여해 확고 불변의 사랑, 운명, 필연적인 요소로 포장한다.

박*영

요즘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의미를 좇는 사람과 행복을 좇는 사람이다. 의미를 좇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피곤하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의미가 흐릿해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자신이 취해야 할 의미를 탈환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의미 있었다'고 말하며 의미에 집착한다. 반면 행복을 좇는 사람은 명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의미가 아닌 행복을 목적으로 행동하며,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또한 크게 중요치 않다. 동시에 의미를 좇는 이들을 의도치 않게 허망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여태껏 의미를 좇는 사람이었다. 사랑을 하는 방식도 사비나보단 테레사에 훨씬 가까웠고 가벼움을 경시했으며 무거움을 선망했다. 하지만 요즘은 무거운 것이 지닌 무의미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소설 마지막, 테레사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토마시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테레사는 마침내 토마시의 사랑을 알게 돼 기뻐 보이기보단,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생각이 한없이 가볍게 끝났다는 사실에 허무해 보인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삶과 죽음이라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무의미함과 가벼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삶에 대한 질문은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같은 곳으로 착륙한다. 존재란 결국 무의미하면서 유의미한 것. 반대로 유의미하면서 무의미하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장은 동어반복일까? 모르겠다. 확실한 건 스탈린의 아들이 똥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견딜 수 없는 무거움 중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는 거다.

양*지

내가 생각한 이 책의 저자인 밀란 쿤데라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인 것 같다. 과연 밀란 쿤데라가 생각한 존재의 무게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아내지 못

했다.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던 다른 팀원들도 똑같이 아직 답을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면 과연 존재와 가벼움과 무거움 중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무거움을 추구하는 테레자와 프란츠 (덧없음을 느낌), 가벼움을 추구하는 토마시와 사비나. 책 속에서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의 존재의 무게감을 보며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거움을 지향하던 자 중 결국 가벼움으로 가게 된 자도 있고, 가벼움을 지향하던 자 중 죽기 전 자신의 가벼움을 원하던 모습을 후회한 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밀란 쿤데라가 이런 모습을 통해 삶이 덧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둘째로 “키치 (Kisch)”를 꼽았으며 이 키워드와 관련해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키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의하고 있는 내용 또한 어려운 탓에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오갔다.

이*호

‘Einmal ist Keinmal’ 한 번은 없었던 것과 같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단 한 번만 경험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도 무수한 한 번의 연속일 뿐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한 모든 것은 없었던 것과 같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기도 하다. 단순히 생각하여도 내 인생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전혀 이상할 것 없다. 때문에 인생은 한없이 ‘가볍다.’ 그러나 ‘나’라는 주체는 최소한 사라지기 직전까지 인생의 ‘무거움’을 느껴야만 한다. 아주 거시적으로 본다면 내 삶의 ‘무거움’ 역시 가볍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격자는 오로지 ‘나’ 하나이다. 주관적인 인식과 해석이 내 세계의 전부이다. 마찬가지로 무겁고 가벼운 것을 가르는 것 역시 그 목격자(나)이기에, 내 삶을 주관적으로 ‘무겁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찰나의 선택은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가볍다.’ 그러나 그 가벼운 선택이 인생 전체를 어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주관적인 해석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벼움’은 곧 ‘무거움’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파르메니데스는 가벼움은 곧 긍정적인 것, 무거움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좋고 나쁨, 옳고 그

름을 나눌 수는 없다. 파르메니데스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정리는 순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따라 내려진 가벼움이 긍정성을 띄고 무거움이 부정성을 띤다는 정리는 곧 영속성을 지니는 하나의 진리이다. 즉, 이 역시 가벼운 선택 속에서 무거운 진리를 놓아내는 선택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생을 좋든 싫든, 자의든 타의든 살아간다. 그러한 순간 Birth와 Death사이의 Choice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그 한번의 가벼운 선택이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최*민

무거움과 가벼움을 표현한 키워드를 계속하여 제시되는 양립된 주제. 가벼움과 무거움 / 육체와 영혼 / 토마시와 테레자 / 사비나와 프란츠 / einmal ist keinmal 와 Es muss sein / 영원회귀와 한 번 뿐인 삶 으로 요약해 보았다. “무거움과 가벼움”을 키워드로 삼은 데에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만큼 가장 큰 대주제이기 때문이다.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대비를 통해 모든 등장인물의 관계와 이야기가 전개되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이 대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무거움과 가벼움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무거움’의 인물인 테레자는 본인이 토마시의 삶을 망쳤다 생각하여 후회하지만 ‘가벼움’의 인물인 사비나는 ‘키치’를 소망하며 후회한다. 이처럼 각각의 소회를 통해 무엇이 정답이고 옳은 것인지 작가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둘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키치”

권*재

“키치”란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저술한 표현으로, 사물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이나 감동적 이미지로 왜곡하고 추어올려 신봉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런 경향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현실을 아름답고 완벽한 환상으로 대신하려는 사람의 욕구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체험적 감정이나 이성도 소외되고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인 견지로 보자면 저급하기까지 한 미적인 가치로 포장되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감동이 아닌 관념적인 감동에 호소하는

것이다. 어쩌면 소설에서 등장하는 ‘가벼움’이라는 관념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 ‘무거운 것’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관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알 수 없으며,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삶이 이어질 뿐 다른 어떤 대안들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죽음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 앞에서 삶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어떤가? 과연 이들 모두 나름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이데올로기는 각자의 의미가 옳은 것, 절대적인 것이라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만 결국 그 이데올로기를 감싸고 있는 ‘의미’라는 것조차 ‘키치’일 뿐이라고 한다.

최*민

소설 후반부에 등장하는 키워드인 “키치” 또한 중요해 보인다. 이 키치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똥과 은유가 있는데, 키치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키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 허례허식”,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식성”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다.

1-3 각자의 감상평 (총평)

박*영

원래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법한 이상해 보이는 인간들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들여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은 각자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에 맞춰 행동한다. 테레사는 토마시의 유일한 육체가 되고 싶어 하며, 독점적인 사랑을 원한다. 즉, 무거운 삶을 원한다. 반면 토마시는 이혼 후 자신의 인생에서 ‘엄매임’을 내다 버리고, 다수의 애인들과 애착 없는 성교를 벌인다. 즉, 가벼운 삶이다. 사비나의 경우는 어떤가. 토마시와 비슷하게 어떤 것에도 정착하고 싶지 않아 고향, 부모, 프란츠까지 모든 것을 배반하지만, 결국 그럼으로써, 자신이 그렇게 혐오했던 '키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벼움을 쫓는 자는 한없이 가벼워 공기처럼 표류해 무의미해지고, 무거움을 쫓는 자는 한 번뿐인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자꾸만 심각해진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유의미함'의 무의미함에 대해 특히 생각해 보게 된다.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구분 짓고자 한다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없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불변, 우리의 終까지 그 가벼운 선택을 무겁게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생이 좋든 싫든, 자의든 타의든 살아간다. 그러한 순간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그 한번의 가벼운 선택이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닌 그저 묵묵히 삶을 살아내어야 할 이유의 존재, 일종의 宿命이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 감상문을 마친다.

이*경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인생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에 대해 심비우스 북클럽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자 부족하지만, 책을 읽고 느낀 점, 그리고 주인공 프란츠, 사비나, 테레자 그리고 토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각 인물들의 서사에 대해 그리고 인물들이 추구하는 바이자 소설의 주제인 삶의 가벼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가인 밀란 쿤데라가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덧없이 가볍고 짧은 인생이니 인생을 즐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하여 삶의 본질을 깨우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힘을 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밀란 쿤데라처럼 삶을 가볍게 바라보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소

이 책의 1챕터와 마지막 챕터의 소제목이 바로 '가벼움과 무거움'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나오는 여러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

다. 이 소설은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그리고 프란츠, 이 각기 다른 넷의 삶과 생각, 이념 또 그들의 만남과 이별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정말 많고 깊은 주제들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인공들을 관통해서 보여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동정과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안겨주었다. 정말 긴 템포로 밀란 쿤데라는 이들의 사랑을 섬세한 감정선들과 생각을 이용해 나에게 보여줬고, 그 덕에 나는 누구보다 그들의 사랑에 빠져들어 토마시와 테레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 동정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사랑. 그보다 더 남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최*민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재밌게 읽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 참 오랜만이다. 로맨스 소설이라는 형태로 삶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또 완성도 높다고 느꼈다. 철학에 조예가 깊지 않아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해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는 것이 아쉽고, 2회독 이상을 해보아야 이해가 더 깔끔히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밀란 쿤데라가 제시하는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서 조원들과 인생의 가벼움과 무거움,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2023년 10월 11일

참가자대표 : 권*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최*민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826 913 1129 1393" data-label="Image"> </div> <p>추천자: 권*재</p> <p>우리들의 두번째 책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이다. 이 책은 우리들이 사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꽤 뒷 주차에 배치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북클럽 초반 회의를 하던 중 다른 책들을 읽기 전에 먼저 ‘몰입’에 대해 배운 후 책에 대한 몰입을 통해 뒷 주차들의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몰입의 즐거움을 앞주차로 땡겨서 먼저 읽게 되었다.</p> <p>작가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순간 ‘몰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니체사상 ‘운명애’를 언급하며 우리가 나</p>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조절하고 그로인해 행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철학적 사상과 거들어 여러가지 유의미한 통계자료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2-1 각자가 몰입했던 기억, 몰입했던 순간

권*재

저번 학기 종강한 후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너무 소홀했었다. 그래서 방학 중 늘 하던 공모전, 스펙을 위한 공부를 과감히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가 다시 몸과 마음을 고쳐보기로 결심했다. 처음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았다. 공부, 일 등에서 벗어나 자고 싶은 만큼 자 보고, 게임도 해보고, 누워서 유튜브도 보았다. 종강 전 꿈에 그리던 일이었는데 일주일정도 하니 마음 한켠이 답답했고 불안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놀아도 되는걸까?”하는 생각이 엄습했다. 그래서 방학 시작 일주일 후, 평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크게 금연, 웨이트 트레이닝, 독서, 마음챙김 정도로 압축되었는데 이를 아우르는 것이 건강 챙기기, 마음, 집중력 챙기기 였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 정리된 직후 무작정 읽고 싶었던 책을 사보고 헬스장을 등록해 보고 식단을 짜보고 병원에 가서 금연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꾸준히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실행해 보았다. 처음에는 망가진 몸과 정신으로 이것들을 다 해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해보니 모든 게 할만 해졌다. 특히 운동, 독서, 마음챙김, 금연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루 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고양감이 들었다. 많이들 한 자리에 앉아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몰입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몰입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를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얻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도전하는 과정이 “몰입”인 것 같다.

박*영

개인적으로 “독서”를 할 때, 몰입이 잘 된다.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

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느낄 틈이 없다. 대부분의 책들은 텍스트를 소화하기 위해 미간을 찌푸리며 문장과 맥락에 100%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과 불안도 없이 그저 읽는 행위에 집중하며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몰입한다. 행복하다거나 즐겁다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바로 저자가 말하는 '몰입'이었다.

양*지

제목에서도 나오는 책의 키워드가 '몰입'인데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전하게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몰입이라는 생각 들었다. 팀원들과 각자 어떤 것을 할 때 이러한 몰입감을 느끼는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나는 뜨개질을 할 때 이러한 몰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뜨개질하는 동안은 온전히 내 손에 있는 바늘과 털실, 뜨개의 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푹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팀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며 역시 사람마다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르구나 싶어서 흥미로웠다.

이*호

이번 책을 읽으며, 당시 어렵곤했던 '몰입'에 대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느낀 몰입은 삶을 능동적으로 느끼는 방법이었다. 단순한 몰입은 우리가 운동하거나, 집중할 때 일어나곤 한다. 예를 들어 축구를 즐기다 보니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던 경험, 체스와 같은 게임을 진행할 때, 엄청난 집중과 함께 시간이 지났던 경험 등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활동은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활동이었다. 그러나 어렵고 하기 싫은 일에서도 몰입에 지각할 때는 행복감이 증폭되는 듯했다. 동시에 내가 몰입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고난을 즐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경

학군단 입단 시험을 준비하던 때 가장 몰입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ROTC 입단을 너무나 하고 싶었다. 정말 ROTC 입단이 절실했던 것 같다. 그렇기에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도, 가족과의 일정이 있어도

습관처럼 입단 시험 준비를 했다. 이때 “친구랑 놀고 싶은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하는 마음을 참은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입단 시험이었기에 시험 준비에 몰입할 수 있었다. 특히 시험공부를 하는 동안 “하기 싫다.”, “힘들다.”는 생각 없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간 줄 모르고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했다. 당시엔 정말 정신없이 공부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정도로 깊이 집중했던 순간이 진실하게 몰입했던 것 같다.

최*민

나 역시 회의 과정 중, ‘마지막으로 몰입해 본 경험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득해졌던 기분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책을 달고 살았던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내 몰입은 점점 축소되어 왔고, 대학생이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내 전부를 담아 몰입할 수 있는 것과 그 깊이가 너무나 알아져 버렸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셈이다. 지금 당장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삶만큼은 어려워도, 현재처럼 어느 하나에도 깊게 몰입하지 못하고 손쉬운 일만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하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2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과 삶의 적용

박*영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 바로 괴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공통점은 과거나 미래를 산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전부 ‘현재’를 산다. 그들은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순간순간의 현재를 살아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저 유일하게 실제 하는 '현실'을 충실하고 온전히 살아갈 뿐이다. 저자의 주장은 에크하르트 툴레의 의견을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써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현자가 현재를 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몰입'은 현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저자는 몰입이 왜 중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해준다. 특히 재밌었던 부분은 '행복'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었다. 행복의 자기 기만적인 속성과 행복을 사후평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가차 없이 돌려 깬다. 실제로 행복이란 사후에 평가되는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정작 그 순간에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맞추면 삶의 허점이 많아진다. 하지만 '몰입'에 맞춘다면 성과와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양*지

>기대치를 낮추는 데서 얻는 자부심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문장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평소 나는 어떠한 목표를 잡아 놓고 실행하다가 게을러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목표를 낮춰 버리고 그 목표에 그냥 만족해 버리곤 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낮춘 목표치에 그저 만족해하는 내가 떠오르며 아 목표치를 낮춰 달성한 목표는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자부심을 제공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장처럼 목표치, 기대치를 낮추기보다는 시간이 더욱 걸릴지는 몰라도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가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진짜 어려워서일까? 아니면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해 벽을 두는 나 자신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 겁이 많아서 무언가 제대로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를 너무 할 수 없다는 생각 안에 가둬 놓은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 문장이 그런 나의 문제를 정확히 꼬집는 문장인 것 같아 굉장히 오래 머리에 남았다. 해보지도 않은 채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아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사랑할 줄 알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 니체의 말은 백번 옳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가까이에서 예를 들자면 과제나 시험공부 등이 있다.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자주 한다.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듯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을 즐겁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 이와 관련해 내가 예전에 본 문장이 있는데, “남는 건 결과고 감정은 사라진다.”라는 문장이다. 하기 싫다는 감정은 지금 게으름을 떨치지 못해 드는 단순한 감정이지만 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의 감정을 떨쳐 버리고 니체의 말처럼 꼭 해야 하는 일을 그냥 사랑해 버려야겠다.

이*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던 것은 행복학개론이라는 수업에서 ‘몰입’이라는 기술을 소개받았다.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을 사랑하라는 저자 칙센트 미하이의 궁극적 목표는 다소 위험할 수 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일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한 삶이 단순히 일을 사랑하는 삶은 아닐 것이라는 내 생각이 개입했다. 일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이 일을 사랑하는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의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칙센트 미하이의 일을 사랑하라는 말은 개인을 움직이게끔 하는 동기부여임과 동시에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종의 강제성을 띠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꾼다. 위에서도 말했듯, 행복한 삶에는 다양한 충분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비록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책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경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을 읽기 전, 저는 긍정심리학자인 미하이가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법을 설명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니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몰입을 단순한 예시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해야 하는 방식은 어떤 분야 간에 상관이 없는데, 그 이유는 몰입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이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과 배움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몰입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목표, 정확한 규칙, 신속한 피드백입니다. 전 이 중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몰입하지 못했던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 영역에선 명확한 목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민

사실, 읽으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지금의 나와 정 반대라고 느껴졌다. 그렇다 보니 이 책의 저자가 전하는 내용이 곧이곧대로 내게 전해지진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었다. 하지만, 내 모습과 정 반대라는 것일 뿐, 저자의 의견에는 정말로 동감했다. 사실 요즘, 과거에 비해 내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비단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않아도, 강의를 듣는 동기들, 친구들, 타 학우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다. 내가 성인 ADHD가 아닐지 진심으로 의심이 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들에 비해 요즘 세대에서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심각성을 느낀 것 같다.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발달하며 등장한 SNS와 숏폼 콘텐츠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깎아 먹고, 우리가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행동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지금 우리 세대야말로 더욱더 의식적으로 '몰입'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 역시 회의 과정 중, '마지막으로 몰입해 본 경험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득해졌던 기분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책을 달고 살았던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내 몰입은 점점 축소되어 왔고, 대학생이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내 전부를 담아 몰입할 수 있는 것과 그 깊이가 너무나 얕아져 버렸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셈이다. 지금 당장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삶만큼은 어려워도, 현재처럼 어느 하나에도 깊게 몰입하지 못하고 손쉬운 일만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하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책 자체를 읽었을 때보다 회의를 통해서 더욱 이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주장처럼, 인간관계와 우리의 직무, 취미에 있어서 더욱 양질의 몰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즉 이미 이론 것들에 대해서 몰입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

2-3 총평

권*재

유튜브를 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북클럽을 계기로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기 전 “많고 많은 자기계발서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책을 덮은 후, “정말 읽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 주체적인 마음이 왜 중요한지, 매 순간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일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등 평소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긍정적 행동에 보상하고 부정적 행동에 처벌한다는 스키너 심리학과는 다르게 자신의 미시적 동기에 집중해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

물론, 그가 제시한 이론 중 많은 부분은 어쩌면 “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다. 학창 시절 자기주도 학습,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체적인 삶인지,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식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몰입의 즐거움”을 읽었던 시간은 어렵פות이 알던 자기 주도적 삶에 살을 붙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세우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

박*영

‘몰입의 즐거움’은 단순히 ‘몰입’의 중요성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태

	<p>최*민</p> <p>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디즈니 픽사의 영화, '소울'이 생각났다. 작품 내에서, 진정한 몰입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몰입의 순간에 현실 세계가 아닌 '영혼의 세계'에 그들의 정신이 있는 것이라는 설정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몰입'. 그리고 그 순간 느낄 수 있는 '몰입의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 아닐지 생각이 들었다.</p>
--	--

2023년 10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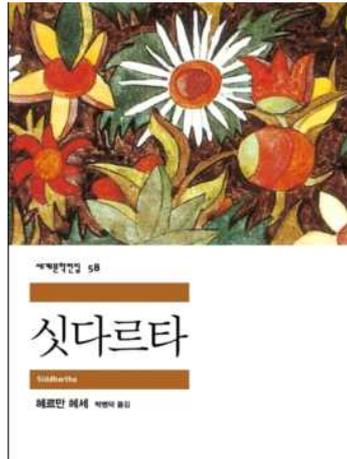
참가자대표 : 권*재

[3차]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추천자: 이*호

우리 북클럽의 3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였다.

주인공 싯다르타는 유복한 바리문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으로 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한 채 내면에 불만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고, 결국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 사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집을 나온 싯다르타는 삶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할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싯다르타는 일종의 종교적 성장 소설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정형화된 종교 교리와 자족적인 영혼의 성찰 사이의 고뇌를 보고 자아발전을 위한 길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이 단어들을 소설 속에 주인공들에 대입

해 보며 얘기 해 보며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소설 속 깨달음에 대해 얘기 해 보았다.

3-1 '경험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권*재

“결국 내가 단지 또다시 어린애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 얼마나 많은 악덕,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구토증과 환멸과 비참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난 길이었어, 나의 마음은 그 점에 대하여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두 눈은 그 점에 대하여 웃음을 짓고 있어. 내가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옴을 듣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올바르게 잠을 자고 올바르게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였어”

싯타르타는 처음 환속한 이후 많은 일을 겪는다. 특히 가장 세상적인 일들을 주로 겪는다. 기생인 카밀라와 사랑을 나누고 돈벌이를 위해 장사도 하며 도박도 즐긴다. 처음 고고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 같던 싯타르타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세인”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세인이 되어버려 괴로워하던 싯타르타는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뱃사공과의 에피소드부터 시작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알아가게 된다. 사뭇 잘못된 행동으로 보였던 그의 경험들은 돌이켜보니 필요했던 경험이었던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직접 부딪혀 봐야만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일을 겪을 당시는 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 이전보다 나아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아, 그때 일이, 경험이 중요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다. 소설 속 싯타르타의 여정은 이미 “세인”인 내겐 답답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온 그에겐 필연적인 일이었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경험해야만 깨닫는 것이 있다는 데 충분히 동감하는 편이며, 그렇기에 싯타르타의 여정으로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박*영

모든 건 결국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작년에 언니가 해준 인상적이 말이 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내게 "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짚어 먹어봐야 알더라. 근데 다 똥이야."였다. 반박할 것도 없이 완전한 사실이라 웃퍼서 웃다가 울었다. 실제로 난 사람들이 하면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기어코 해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었다. '결국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지'가 모토라면 모토였다. 가끔 도발적인 행동들 중 하나씩 얻어걸리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전'보단 '안전'에 가치를 두며 사람들이 으레 옳다고 말하는 진리와 사상을 따르려 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 '그때 사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하며 회환이 남았다. 그래서 싯다르타를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싯다르타가 모든 쾌락과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였다. 모든 선택은 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남들이 얘기하는 진리에 휘둘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선택을 하면 결국 미련이 생겨 후회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몇 번의 경험들을 겪고 나서야 '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하며 비로소 받아들이고 깨닫게 됐듯, 세상에 정답은 없고 결국 경험해 봐야만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양*지

나는 흔히 말하는 경험주의자이다. 항상 뭐든 "안 해 보고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하게 돼도 해 보고 후회하자", "지금 죽을 듯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 보려고 한다. 이 싯다르타도 굉장한 경험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남들이 모두 따르는 고타마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특히 속세와 떨어져 살다가 미모의 여성인 카말라 와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기도 하고, 지역 부자에게 상술을 배워 큰돈을 벌기도 하는 것을 읽으며 정말 경험의 끝을 보는구나... 난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했다.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전개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든 경험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

다.

이*호

불교에서 그려지는 수행은 사실 고된 것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진리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에 더욱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싯다르타의 시작은 진리를 찾기 위한 수행에 가까웠으나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며 '성자'가 되어 간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卽是空 空卽是色” 이 책을 읽으며 계속해서 생각난 문장이다. 내가 불교 철학에 대해 정통한 것은 아니지만, 저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책의 주인공인 싯다르타는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산전수전을 정말 다 겪으며 살아간다.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 수련을 하기도, 흥청망청 색과 유희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깨달음을 찾아간다.

이런 싯다르타의 진리를 찾기 위한 고행 아닌 고행은 일종의 경험주의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험주의는 인식의 바탕은 감각과 지각으로써의 경험에 있으며, 경험 내용이 곧 인식이라는 철학의 조류이다. 나는 비교적 사변적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어찌 보면 경험주의와는 꽤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싯다르타의 경험은 내게 아주 인상 깊게 들어왔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진리라는 부분을 직접 부딪쳐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충고를 남겨주었다.

인생에서 목표성의 결여를 느끼던 나는, 인생은 곧 진리였으며 진리는 곧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적인 세계와 평등무차별한 공공의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뜻하는 이 말을 지금의 나는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은 물질을 빈 것으로 느끼라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물질적 세계를 잘 탐구하라는 뜻이었다. 경험적 삶은 곧 진리를 추구하는 삶과도 비슷한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경

싯다르타를 읽고 나서 내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소설 속 주인공 싯다르타처럼 어렵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오며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운동을 잘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을 때가 떠올랐다. 나도 중학생 때는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어서 체육 과목이나 학교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 없었다, 나도 주변 아이들처럼 운동신경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잘하고 싶었다. 어찌 보면 열등감이었다. 지금의 나도 그렇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럽고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도 포기하지 못한다. 누군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놓기가 쉽다고 하지 않았나? 싯다르타를 읽으니 몽상적인 것들보다 조금 더 나의 경험과 나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미를 부정하고 더 높은 수준의 나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해온 경험 그리고 나를 믿으며 기존의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택해보는 해탈의 경지를 이뤄보아야겠다.

3-2 “싯타르타” 속에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과 그 의미

권*재

카밀라와의 만남 장면이 가장 기억난다. 처음 부처와의 동행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내려온 싯타르타는 곧 카밀라와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때 싯타르타는 카밀라에게 한눈에 반한다. 그리고 사랑에 서투른 싯타르타는 카밀라에게 “아름다운 아가씨, 그가 그대를 강제로 범할 수도 있을지 모르오.”라고 위협을 하지만 이후 카밀라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사랑이란 구걸하여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거리에서 주워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된 길을 생각해 냈던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당신처럼 예의 바른 젊은이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물론 사랑과 관련한 명문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사랑을 시작하려는 순수한 이에게, 가장 서투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이에게 확실한 문장으로 사랑을 정의한다. 개인적으로 싯타르타가 세상에 온전히 내려간 후 겪은 첫 번째 일이기도 하고 카밀라와의 사랑으로 진정한 세상 사람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본 장면과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박*영

<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

뱃사공인 바주데바와 강물 : 윤회의 굴레와 인간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순환한다. 이는 곧 죽음과 탄생이라는 물결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순환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윤회)과 같다.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흐르는 강물과 원하지 않더라도 태어나고 죽는다. 마찬가지로, 위에 나온 구절은 소크라테스의 '자기 자신을 알라'라고 와 많은 현자들이 모든 답은 자신 안에 있다고 한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 말이란 신비로운 참 뜻을 훼손해 버리는 법일세. 무슨 일이든 일단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즉시 본래의 참 뜻이 언제나 약간 달라져 버리게 되고, 약간 불순물이 섞여 변조되어 버리고, 약간 어리석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야. >

싯다르타 속 '말'이 상징하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진리라고 표현되는 순간 즉시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 진리를 맞받아쳐 줄 또 다른 진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리의 내용 자체에 태클을 거는 세력과 진리를 악용하는 세력이 늘 존재하기에 항상 어리석은 것이 된다.

양*지

소설 속에 끊임없이 묵묵히 흐르는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인생을, 뱃사공 바주데바는 인생을 살며 도움을 얻는 귀인을 뜻하는 것 같다. 싯다르타가 속세로 떠날 때도 속세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강을 건넜고 바주데바를 만나 그의 조수로 살며 참선하는 장소도 강이기 때문에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바주데바를 귀인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싯다르타가 강에서 스스로 참선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명쯤 기억에 오래 남을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주데바에게

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

이*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싯다르타 2부의 시작이다. 마치 만물을 깨달은 듯한 싯다르타는 이른바 ‘속세’, 사회로 돌아간다. 이미 성인聖人の 모습을 보이는 듯한 싯다르타는 속세로 돌아감과 함께 점차 일반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싯다르타의 모습은 훗날 바주데바와 함께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아 고타마와 견줄 성인聖人이 된 싯다르타 그 역시 한 명의 개인에 불과함을 말하며, 우리 역시 그와 다르지 않게 진리를 탐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삶의 목표,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막연히 경험적 삶에 대한 목표 의식을 실어주었다.

이*경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장면은 싯다르타의 가장 첫 장면인 바라문의 아들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고행자의 길을 걸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받는 대화 장면이 중요하고 인상깊게 느껴졌다. 중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선 때론 우리가 포기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싯다르타는 자신의 신분과 출생을 모두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보여드렸다. 난 이 장면에서 싯다르타가 말하는 경험주의의 경험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선 때론 포기해야 하지 않는가, 경험이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인데. 그 경험의 시작은 도전하는 용기와 자신감에서 나온다. 싯다르타는 다른 의미로 나에게 정녕 필요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었다.

3-3 인상적이었던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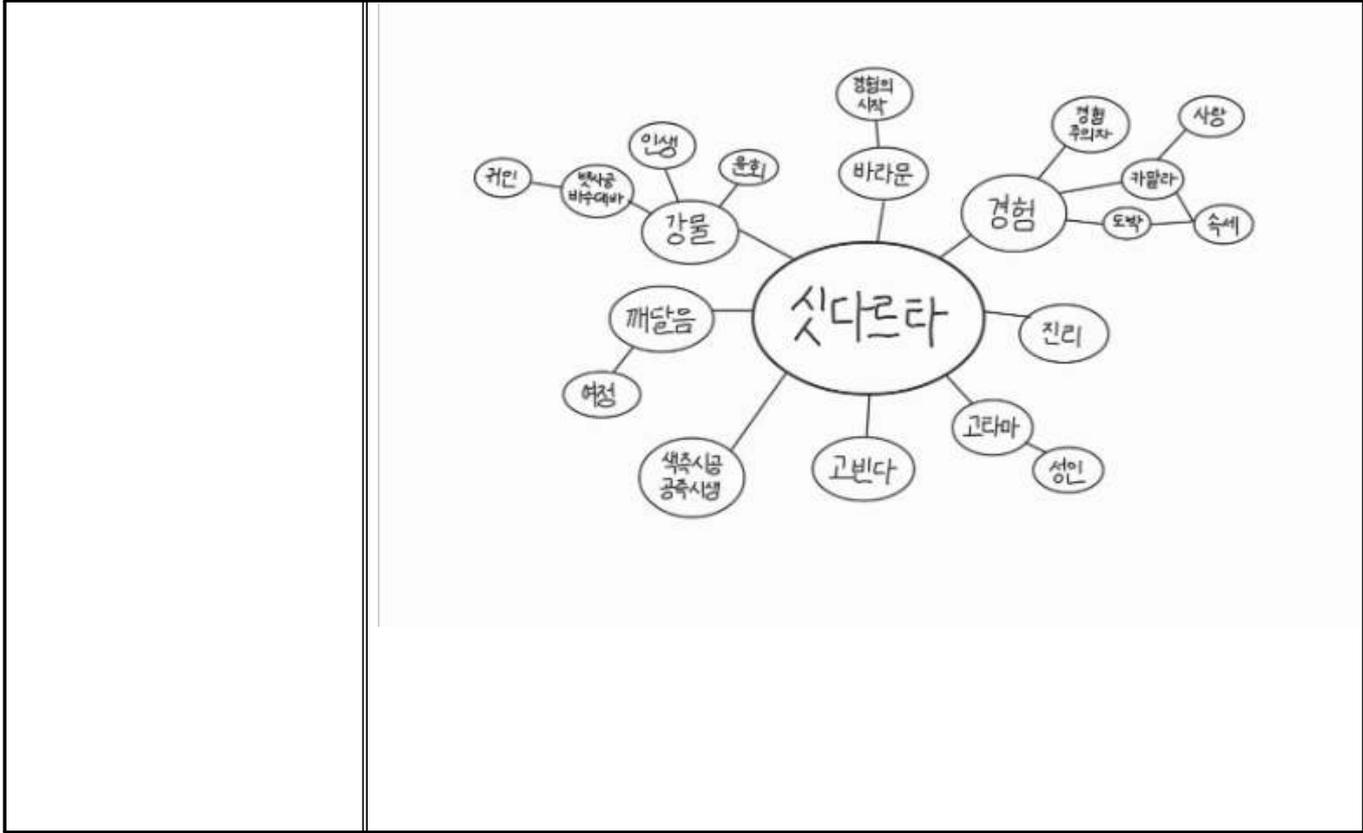
박*영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선하게 보이며, 나에게는 죽음이나 삶이 다 같게 보이며, 죄악이나 신성함이 똑같이,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똑같이 보여. 세상만사의 이치가 틀림없이 그러하며, 세상만사는 오로지 나의 동의, 오로지 나의 흔쾌한 승낙, 그리고 나의 신선한 양해만을 필요로 할 뿐이네.”

결국 옳고 선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통찰을 담은 구절인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이제 돌이켜 보니,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삶이란 거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삶은 고통이고 사람은 악하다와 같이 정해진 진리와 형식이 존재하는 게 아닌 그저 각자가 어떤 걸 믿고 있는지에 따라 거울처럼 그대로 비칠 뿐이다. 잘 살고 싶으면 잘살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믿으면 되는 건데 영똥한 걸 믿으면서 잘 살고 싶어 하면 필연적으로 괴롭다. 그럴싸한 일을 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기 전에 단정하고 좋은 것들을 진심으로 믿는 게 우선이다. 믿게 되면 알아서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은 가장 어렵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보단 자기 확신의 영역이라 신기루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매일매일 조금씩 상기시켜야 한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들과 믿고 있는 것들을 환기하고 기록하며 천천히, 무너지지 않게 확신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양*지



재

2023년 10월 25일

참가자대표 : 권*재

[4차]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01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최*민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826 510 1118 996" data-label="Image"> </div> <p>추천인: 박*영</p> <p>우리가 이번주에 선택한 책은 신형철의 '인생의 역사'라는 시화집이다. 평소에 시를 즐겨읽는 조원들도 있고 거의 접해보지 못한 조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이 책 속에서 나오는 많은 시와 그 시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각자 본인이 제일 감명깊게 읽은 시를 뽑아보고 이야기 해 보았다. 각자가 생각한 좋은 시들은 모두 다 달랐고, 그에 대한 생각도 다양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게 재밌었던 책 같습니다. 또한 작가는 인생의 중요한 고통, 사랑, 죽음 등을 각자 커다란 목자로 묶어 주제에 맞는 시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목차가 본인의 관심을 끌었고, 책의 구성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p> <p>4-1 각자가 생각한 좋은 시와 그 이유</p> <p>권*재</p> <p><봄밤> - 김수영</p> <p>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 혁혁한</p>
-------------------------------	--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오 봄이여 /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 기적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 오오 인생이여 /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 오오 나의 영감이여

개인적으로 김수영 시인의 시를 고등학교 때 처음 보았다. “어느 날 궁을 나오면서”를 보며 직설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어조가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김수영 시인은 주로 군부독재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를 주로 썼다고 배웠다. 하지만 본 책에서 소개된 “봄밤”은 기존에 알던 김수영 시인의 시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새로웠다. 특히 위로와 위안을 주는 시라는 점에서 “봄밤”은 나에게 더욱 특별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서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매년 스스로를 다그쳤고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언제나 예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법만을 배웠다. 한림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1~2주 정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학기 중 매번 희망 사항은 “2주 정도 전화도 인터넷도 안 되는 섬에서 푹 쉬고 싶다.”였다. 반대로 언젠가부터 매너리즘이 심해지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때 “애타는 마음에 서둘지 말라”는 김수영 시인의 위로는 내게 울림을 준다. 해설을 찾아보니 시인 본인의 성찰과 다짐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지만 왜인지 이 시를 본 나도 꽤 많은 위로가 되었다.

박*영

<서사> - 한강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 나에게 말을 붙이고 / 내가 네 운명이란다, /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 오래 있을 거야 / 눈물을 흘리게 될지, /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 이제는 /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 잘 모르겠어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 라고 말하게 될까 /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 당신은 / 내가 말하지 않아도 /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 무엇을 후회했는지 / 무엇을 /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 눈먼 걸인처럼 어루만지며 / 때로는 /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 그러니까 /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 그 윤곽의 사이 사이, /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 어리고 / 지워진 그늘과 빛을 / 오래 바라볼 거야 / 떨리는 두 손을 엮을 거야 / 거기, / 당신의 뺨에, / 얼룩진,

1.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2.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라고 '
- 특히 이 두 부분이 가장 좋았다.

1) 의 경우, 이제껏 화자의 삶에 닥쳤던 불행과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 혐오와 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요즘, 결국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타인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선 자기 긍정과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과 경험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내면화하지 않고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로 자각하고 놓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강의 서시는 삶에서 다가오는 희노애락의 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시간들을 조용히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앞의 삶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2) 의 경우, 내면 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에 말하는 듯해 보였다.

인간은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육체 없이 에너지와 주파수로만 존재하는 영혼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수행하는 자아이다. 나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선택들이 전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아가 저지르는 갖가지 일들을 수공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찝찝함을 느꼈다. 가령, 운동 미루고 침대에 누워있기, 해야 할 일 외면하기, 보고 싶은 사람 귀찮아서 안 만나기, 관계에서 오는 갈등 회피하기 등등. 수행하는 자아는 대부분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 영혼의 자아가 '일 미루지 말고 오늘 끝내고 싶어'하고 얘기하더라도 10번 중 8번을 미뤘었던 이전의 관성에 따라 알뜰하게 행동한다. 수행하는 자아는 쉽고(흥미와 즉흥성), 강렬하고(도파민), 익숙한 것(게으름)을 좋아해서 그렇다. 반면 영혼의 자아는 다른 것들을 원한다. 생활패턴이 좀 더 개선되길 원하고, 나쁜 관계는 끊어내고 주변인들과 건강한 애정을 나누길 원하며, 귀찮을지라도 무언갈 꾸준히 하며 차곡차곡 성과를 내길 원한다. 영혼의 자아가 하는 말을 세심히 들은 후, 수행하는 자아가 그에 맞춰 행동할 때, 우리는 '자기 일치감'과 현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자아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선 수행하는 자아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한 영혼의 자아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자 하는 노력. 가령 일기 쓰기, 명상, 생각 정리하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저자는 시를 통해 영혼의 자아를 만났고, 그 순간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아가 기록하고 있는듯해 보였다.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라고' 때론 영혼의 자아가 하는 얘길 들을 수 없을지라도 결국 수행하는 그런 맥락에서, '내 안의 또 다른 나',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준 점에서 한강의 서시가 인상적이고 좋았다.

양*지

<장례식 블루스> - W.H.오든

모든 시계를 멈춰라. 전화를 끊어라.

기름진 뼈다귀를 물려 개가 못 짓게 하라,

피아노들을 침묵하게 하고 천을 두른 북을 쳐

관이 들어오게 하라, 조문객들을 들여보내라.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신음하며 돌게 하고,
그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하늘에 휘갈기게 하라,
거리의 비둘기들 하얀 목에 검은 상장(喪章)을 두르고,
교통경찰에게는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며 남쪽이고 북쪽이었다,
나의 평일의 생활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다, 모두 꺼버려라,
달을 싸버리고 해를 철거해라,
바다를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려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그는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며 남쪽이고 북쪽이었다. 나의 평일의 생활
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
래였다.”

시 전체가 좋았지만, 그중 이 구절이 가장 좋았다. 사실 하나씩 나열
해 놓아서 그렇지 결국 동서남북, 평일과 일요일, 정오와 자정, 대화와
노래 모두 그냥 그는 ‘나’의 모든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 자체도 좋았지만, 뒤에 적힌 해설이 더 좋았는데,
해설 중 이런 구절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사랑한
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생하는 나의 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생성된 나의 분인까지 잃는 일이기 때
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 나 중에 가장 중요한 나도 죽는
다.”

이 세 구절이 정말 깊게 기억에 남았다. 이 부분만 5번은 더 읽어봤을

정도였다. 평소 상대에 따라 각각 그를 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친구 관계에서 한 친구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 그 친구와 함께 할 때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절이 내 평소 생각과 많이 닮아 공감하며 읽었고 이런 찰떡같은 해설이 내가 이 시를 더욱 좋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호

<허공 한줌> - 나희덕

“이런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깜박 잠이 든 사이 아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간 위에서 놀고 있었다. 아기가 모르는 난간 밖은 허공이었지.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난간의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을 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어. 그리고는 온몸의 힘을 모아 아기를 끌어안았어.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줌뿐이었지. 그 순간 엄마는 숨이 멈춰버렸어. 다행히 아기는 엄마 쪽으로 굴러 `떨어졌지.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우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을 그치고 아기는 잠이 들었어. 죽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눕혔어. 아기를 토닥거리면서 그 옆에 누운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지 몰라.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비어 있는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텅 비어 있을 때에도 그것은 꼭 차 있곤 했지. 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날 밤 참으로 많은 걸 놓아주었어. 허공 한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려는 듯 말야.”

내가 생각한 가장 좋았던 시는 허공 한 줌이다. ‘허공 虛空’ 빌 허, 빌 공을 쓰는 한자어로 텅 빈 공중을 의미하는 말이다, 비어있어 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개념이지만, 시적 허용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간절한 마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사실 2연의 작가의 혼잣말과 비슷한 부분을 보기 전까지는 이 시를 그저 단순한 엄마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날 밤참으로 많은 걸 놓아주었어. 허공 한 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려는 듯 말야.”라는 구절을 읽자마자 이 시는 현대인의 삶, 우리들 인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 1연의 허공 한 줌은 ‘아기’로 그저 엄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다. 1연의 엄마의 ‘아기’는 허공 한 줌으로 치환되었지만 2연의 허공 한 줌은 다시 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 우리가 놓치고 언젠가 포기하고 있는 듯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졌다. 허공이라는 개념과 추상적인 꿈, 희망과 다를 바 없게 느껴져 더욱 좋게 느껴졌던 시였다.

이*경

<가지 않은 길> -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가 인생의 역사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다.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 결코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최근 나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어떤 진로를 가져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 시는 삶에 선택의 기로에 대한 시여서 이 시를 읽자마자 내가 하는 고민을 남들도 하고 있다는 공감이 되어 기뻐다.

최*민

<아이스크림의 황제> - 윌리스 스토퍼브스

큰 시가 마는 사람을 불러

근육질인 사람으로, 그리고 휘젓게 해

부엌의 컵 속 색정적인 응유를 말아야

처자들은 늘 입던 옷 그대로

꾸물거리게 내버려둔뒤, 소년들에게는

꽃을 지난 달 신문에 말아서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의 피날레가 되도록 해.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니까.

유리 손잡이가 세 개 빠진

전나무 경대에서 꺼내, 그 시트 말아야

한때 그녀가 공작비둘기 수놓았던 그것을 펼쳐서

그녀의 얼굴을 덮도록 해.

딱딱한 발이 빠져나온다면 그건

그녀가 얼마나 싸늘하고 또 묵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램프의 빛줄기를 잘 고정시켜놓도록.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니까.

제목부터가 너무 눈에 띄는 시였다. 개인적으로 정말 취향인 분위기의 제목이었고, 내용은 제목의 분위기와 정반대였지만, 그 또한 내 정반대 취향에 딱 들어맞았다. 상반된 분위기와 알 수 없는 비유들에서 오는 위화감이 참 좋다. 장례식에서 맛보는 아이스크림. 금새 녹아드는 이 특징이 죽음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 같아서 제법 재밌는 비유란 생각이 들었다.

4-2 어떤 주제가 가장 좋았나요?

권*재

5부 “인생의 원” 파트가 가장 좋았다. 5부에는 이성복, <생에 대한 각서>, 레이먼드 카버, <발사체>, 김수영, <봄밤>, 필립 라킨 <나날들>,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과 그에 대한 해설이 있다. 특히 <봄밤>과 <가지 않은 길>이 인상적이었다. 최근 3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곧 취업과 진로를 위해 많은 생각들을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 반드시 무언가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등 진지하고 무거운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소개한 두 시는 내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서둘지 말라”는 반복도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 택하였고 /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구절도 참 좋았다.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취업을 생각하는 이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스스로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매번 수많은 일과에 치여 어떻게 하루가 지나간 지 모르게 살아가는 일상이 많았다. 그런데 두 시를 읽고서 잠시나마 생각이 정리되고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을 받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까?”라는 어려운 주제를 각각의 시를 통해 나름대로 솔루션과 위로를 받아 특히나 좋았던 것 같다.

박*영

죽음의 점.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설적으로 ‘왜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골몰하게 되는 파트였다. 특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파트가 인상적이었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본인끼리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와 그 사람들의 본인을 생각했다. 오직 내 앞에서만 발현되고 살아 숨쉬는 그분들을 생각하자 삶을 좀 더 잘, 곳곳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양*지

1번에 적었던 가장 좋았던 시가 들어있는 [죽음의 점] 카테고리 가장 인상 깊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읽기 위해 표시해 놓은 메모가 이 카테고리에 가장 많기도 했다. 평소 내가 생각하던 죽음에 대한 가치관과 비슷한 구절이 많아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앞서 1번에서 언급했던 구절 이외에 인상 깊은 구절이 더 있어 언급해 보자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왕 살 것이라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끔찍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발견에서도 올 것이다.’이다. 가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죽음 근처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등에서 보았는데, 이 구절이 그 상황과 딱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았지만, 행복함이나 편안함을 느끼며 살고 싶어하는 그들 스스로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다. 만약 나라도 그런 상황 속 행복을 느끼는 나를 본다면 내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워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실제 죽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땅한 정답이 없이 끊임 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호

인생의 역사를 여는 첫 목차는 '고통의 각'이다. 인생의 역사라는 이름의 책에서 가장 먼저 논하는 것이 사랑도, 행복도 아닌 '고통'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명 깊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은 공감하기도,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다. 사실 인생을 구성하는 큰 부분들(기쁨, 성공, 행복, 사랑과 같은 것)에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고통이다. 고통이 있기에 인생의 나머지 부분이 더욱 극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고통이다. 저자는 이런 고통이라는 부분을 이 책의 가장 서두에 배치하였고, 덕분에 아주 흥미롭게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최*민

죽음의 점 파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위에서 소개한 시도 이 파트고, 전체적으로 모든 시에 깔린 암울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그 암울함 속에서 오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위안을 준다. 다른 파트에서도 좋은 시들은 많았지만, 죽음의 점 파트에 있는 대부분의 시들이 와닿았기 때문에, 이 파트가 가장 기억에 남고, 다시 찾아 읽어볼 거 같은 파트이다.

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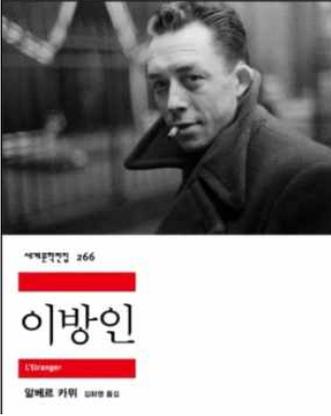
사랑의면 파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파트에 관해 시를 읽을 때 연애상담을 받는 것 같아 신기한 경험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명쾌해질 수 있어, 답답해질 때 즈음 다시 읽어보고 싶다.

2023년 11월 01일

참가자대표 : 권*재

[5차]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08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추천인: 이*소</p> <p>이번주차 우리의 책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입니다. 주인공 뫼르소는 첫장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뫼르소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설 중 후반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후에도 범상치 않은 태도를 고수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 카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조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해 본 후 주인공 뫼르소에 집중해 책을 해석해봤습니다.</p> <p>5-1 뫼르소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가?</p> <p>권*재</p>							

뫼르소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느냐는 질문 보다는 “뫼르소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질문이 앞서는 것 같다. 소설에는 인물을 통해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부여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뫼르소는 그 어떤 존재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세상”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은 시종일관 감정의 동요 없이 모든 일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 다소 비현실적이다. 이런 모습이 소설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자신이 받는 재판도 마치 남의 일인 듯 즐기며 보는 모습을 보인다. 아무리 주인공이 비범한 느낌을 준다 해도 과연 이런 삶의 방식이 가능한 것일까? 이방인은 뫼르소 어머니의 사망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뫼르소가 모든 일에 초연할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을 제공했으면 주인공에 더 쉽게 몰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박*영

지지하지 않는다. 뫼르소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이다. 기본적으로 심각하리만치 남에게 무관심하다. 뫼르소의 주변인들은 그 무관심을 ‘존중’이라고 착각한다. 뫼르소는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간이다. 실제로 마리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랑하는 건 아니야’라고 말하며 상처를 준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마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의 삶은, 자신에게 있어선 자유의 실현일지라도 주변인들에게 상처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인간이 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결단코 지지하고 싶진 않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모든 것에 무관심하며 귀찮음으로 범벅된 삶의 자세. 타인과의 교류에서 행복도,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는 깡통 같은 마음. 그런 방식을 지지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이*호

나는 뫼르소의 삶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구태여 부정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점에서는 지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뫼르소는 삶에 달관한 듯한, 본인의 삶이라기보다도 관조하는 듯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도중, 그는 레이몽과 만나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태양 빛이 반사된 탓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정말로 본인의 삶에 몰입하기보다도, 관조하는 자세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나는 구태여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그것은

여기서는 뒤편이지만 누군가, 개인의 삶이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체류해 있는 내가 운명이라는 사건에 정말 휘말리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반부 뒤편이 발끈하는 부분에서 나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로 삶에 달관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버럭 화를 낼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다시 책의 초반부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뒤편에게 죽음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여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열심히 관찰하고자 한 결과가 삶의 몰입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저 회피형 인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까지 그가 하는 선택은 “딱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결국 뚜렷한 선택을 한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담배를 피운다던가, 레이몽을 도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던가, 총을 무려 4발이나 쏘다든가 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윤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총 단 한발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즉, 책의 종반부에 가선 그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라는 태도는 그저 자신이 선택한 부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회피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나는 그의 삶의 방식이 달관적 삶, 관조적 삶이 아닌 회피성, 도피성 삶이라면, 나는 그의 삶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경

나는 뒤편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뒤편의 삶과 태도는 우리와 많이 동떨어져있기에 우리와 같은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뒤편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있는 입체감과 몰입감이 왜 이 캐릭터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발현된 것인지 왜 그런 선택을 한건지 오히려 나와 많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 더 관심이 갔던 것 같다. 그의 암울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보고 사실 많이 부러웠을지도, 그의 삶도 어찌보면 남들처럼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쫓대라는 것이 있는 삶이라면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다른 사회라면 뒤편 같은 삶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최*민

뫼르소의 삶을 내가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누구의 삶도 지지할 수 없으며 역으로 모두의 삶을 지지해야만 한다. 뫼르소는 자신의 삶 속에서 '관찰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설령 본인의 인생일지라도, 그는 결코 나서는 일 없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의사 결정만을 취한다. 이런 그의 삶의 태도는 2부에서 모두에게 질타당한다.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 배심원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이 뫼르소의 삶의 태도이다. 뫼르소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뫼르소는 친구가 여자친구를 해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도움 요청에 그를 도와주었다. 뫼르소는 인류에게 있어서 적합한 인간상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건의 인과관계가 아닌, 뫼르소가 정상적 인간성에서 벗어남에 더욱 집중하여 뫼르소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 우리가 과연, 그의 죄가 아닌 그의 본질과 삶을 저울질할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삶과 그 방식에 가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그의 삶을 지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역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며, 여느나처럼 그의 삶 또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5-2 각자가 생각하는 카뫼의 철학, “부조리”

권*재

알베르 카뫼가 이방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부조리'라고 한다. 우리가 '부조리'하면 떠오르는 사회적 부패 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알베르 카뫼는 이 세상은 만물에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꽃은 그냥 피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죽음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만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카뫼는 이러한 괴리를 '부조리'로 표현한다.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은 '세상'과도 같은 사람이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심지어는 자신의 사건에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그가 화가 나는 지점은 자신에게 다른 이들이 강요하는 '의미'이다. 다른 이들은 종교적, 사회적인 통념으로 뫼르소를 규정하고 그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뫼르소를 고쳐들려 한다. 카뫼가 그리는 '세상'에 비유한 뫼르소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이들의 갈등을 통해 그는 부조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카뮈가 그리는 세상은 한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관점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카뮈는 "이 세상에서 고민해야할 문제는 딱 한가지이다. 그것은 자살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카뮈의 생각대로라면 어떠한 의미도 없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 삶의 의미 또한 없고 더 살만한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카뮈는 그저 허무주의적인 작가일까? 카뮈는 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뫼르소의 옥중 생활을 통해 보여준다. 뫼르소는 옥 중 생활을 하며 처음에는 제한된 자유 때문에 답답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행복했던 소소한 과거를 회상하며 작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회상에 빠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살아간다. 극한의 상황에 치달아 옥 중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함을 느끼는 뫼르소처럼 카뮈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사소하든, 거창하든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다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고 더 살아갈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 같다.

박*영

카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우주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신, 사랑, 정의로 아무리 의미를 찾아내봐야 결국 우주는 아무런 생각도, 입장도 없다. '이방인'에서 뫼르소가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이 세상이 나와 다름없는 형제 같았으니'부분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뫼르소의 모습은 곧 인간의 삶에 아무런 감정도, 관심도 없는 인생 즉 우주의 모습과 같다. 이를 뫼르소는 '다정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했고, 이게 곧 카뮈가 주장하는 부조리다. 악인이 죽는 것엔 아무런 이유도 없듯, 선인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다. 카뮈의 시지프 신화처럼 인간은 미친 듯이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려 하지만, 결국 돌은 정상에 닿자마자 다시 굴러떨어진다. 그 속엔 아무런 악의도 없다. 산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런 비합리적인 우주의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 아니, 오히려 카뮈는 우주의 그런 부조리함 앞에 가운데손가락을 날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이며, 나도 이에 동의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결국 인간이 부여한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이 만든 가치와 의미가 곧 우주의 진리라고 상정한다면 곧 그 가치

에 들어맞지 않는 누군가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무가치해지며 죽어야만 하는 삶이 된다. 아무 의미도 없기에. 아니 오히려 의미를 훼손하는 삶이기에. 하지만 그런 건 없다.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신만의 진리와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 우주의 부조리함에 굴복하지 않고 옳을 날려주는 것. 그것뿐이다.

이*호

우선 그의 철학이 부조리라는 사실을 알고 보았을 때, 뫼르소를 둘러싼 정상성까지도 부조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상성이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규범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정상성은 개인에게 폭력으로, 일종의 “부조리”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이미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정상성 속에 피투 彼投된 개인, 뫼르소는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장면은 바로 뫼르소의 재판이다. 검사를 비롯한 배심원단은 뫼르소의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보다 그들의 “정상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뫼르소의 도덕적 비윤리에 대한 재판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는 큰 문제 없이 뫼르소가 부도덕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의 상태(정상성이 정립되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행동은 정말로 의미 없는 것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철학 아래, 내가 정리한 잣대가 아닌 타인이, 사회가 정립한 정상성을 따르는 이 세상은 충분히 부조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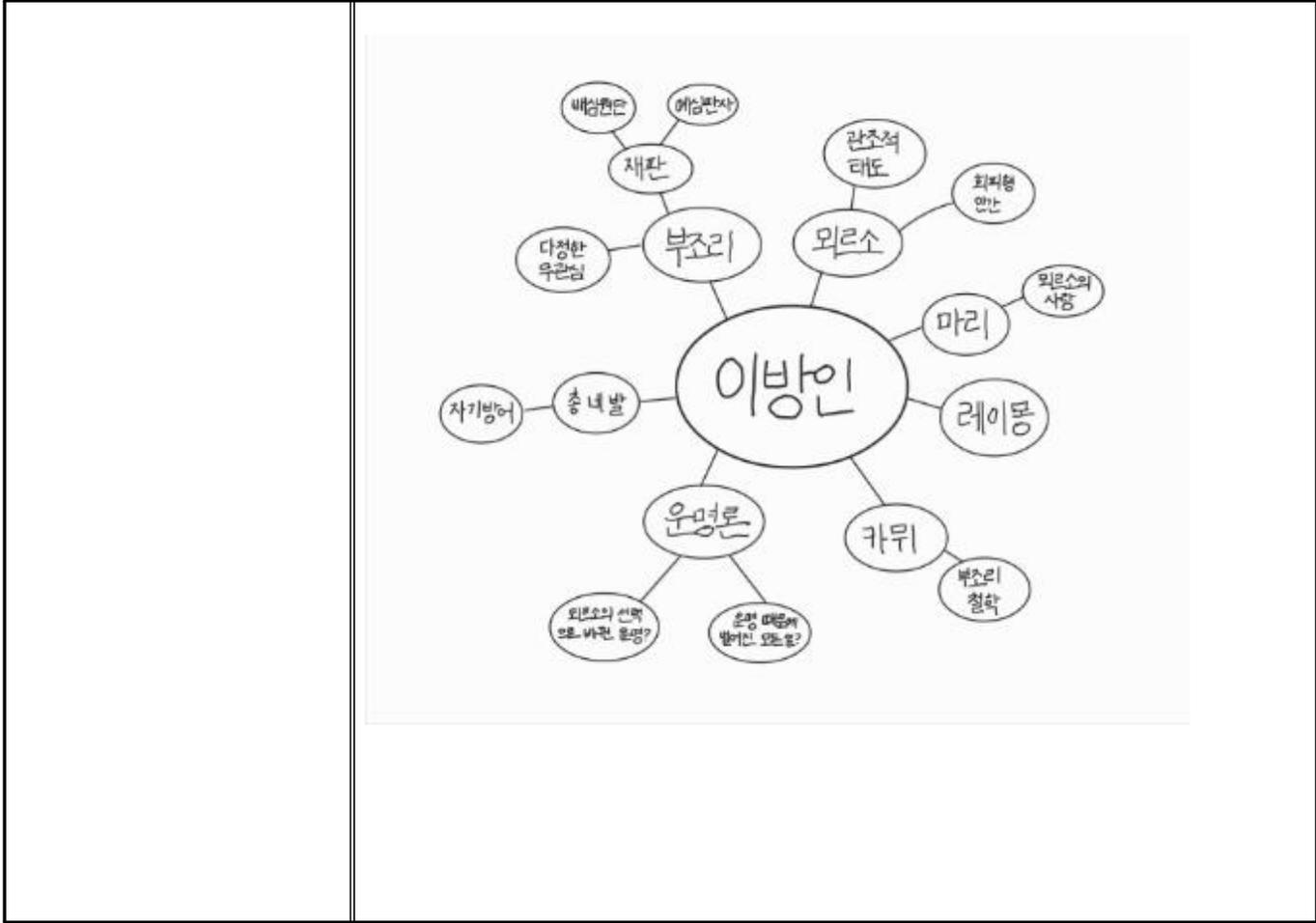
부조리 철학을 알아보고 나니, 이 책은 주인공 뫼르소를 향한 사회의 부조리만을 보여준 책이랑게 느껴졌다. 뫼르소는 초반 어머니의 장례식부터 무례함과 불편함을 느껴왔고, 결국 후반부에는 살인을 했고 재판 과정에선 아무도 뫼르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살인을 한게 결코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이유 정도는 들어볼만 하지 않을까? 뫼르소를 판단하는 판사의 선입견과 혐오감은 어쩌면 뫼르소를 더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뫼르소처럼 부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

닐까? 하지만 우리가 정한 인간이 가져야 할 선한 마음 속에서 정한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 위험할 것이고 사회 전반에 있는 부조리,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최*민

알베르 카뮈의 부조리 철학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나니 이 이방인이라는 책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층 더 분명해졌다. 뫼르소는 인물은 유별나다. 지금껏 인류가 정해놓은 틀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자신을 그 틀 안으로 재단하려 들지도 않는다. 부조리란 이 뫼르소를 옥죄어 오는 이 틀을 의미한다. 무의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채워나가는 인간들. 이들이 부여한 의미들은 무의미 그 자체인 죽음과 세상에까지 영향을 뻗어왔다. 뫼르소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처럼, 이 의미들, 틀, 부조리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나가고 맞서 싸워나가는 할 개념이다. 관념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뫼르소는 관념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틀 안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부조리에 거스를 것이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오롯이 '뫼르소'일 것이다.

양*지



2023년 11월 08일

참가자대표 : 권*재

[6차]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복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최*민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추천인: 양*지</p> <p>우리는 이번주차에 양귀자의 모순을 읽었다. 이 책의 주인공 안진진은 대학 등록금을 위해 휴학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25살의 여성이다. 안진진은 현재 두 명의 남자 중에서 누구와 결혼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작가는 우리에게 그 두 남자를 통해 안진진의 아버지와 이모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 안진진이라면 어떤선택을 할지 와 이모와 어마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로 하였다.</p> <p>6-1 삶의 방식 - 안정감, 이모의 삶, 영규를 선택한 이유, 어떤 선택을 할까?</p> <p>박*영</p> <p>진진이 영규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또다른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p> <p>장우와 있을 때 진진은 평소와 달리 갈망하고 자신을 은폐하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진에게 큰 변화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 변화의 싹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진진은 안정적인 '영규'를 택한 게 아닌,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 '영규'를 선택한 것이다.</p> <p>즉, 사랑 앞에서 두렵고, 그로 인해 변화하고 흔들릴 자신이 낯설어 장</p>							

우를 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양*지

안진진이 설렘을 느끼는 김장우와 안정감을 느끼는 나영규 중 나영규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진진의 과거는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가출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며 사고를 저지르는 동생 안진모를 뒤치다꺼리하는 어머니까지 어찌 보면 안정적이지는 못한 인생을 살아온 듯 보인다. 김장우를 만나면 즐겁고 설레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자신의 본모습을 자꾸 숨기게 되지만, 나영규를 만나면 덜 재밌고 덜 설레지만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다. 나영규에게는 안진진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걸 보며 안진진이 나영규와 결혼하기로 다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안진진이 술에 취해 김장우에게 화를 내며 어릴 적 아버지가 안진진에게 했던 말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스스로가 아버지 같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것 같다.

이*호

안진진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없던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선택한 것 같다. 안진진은 비록 표면적으로 굴곡있는 삶을 살아왔다.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아왔음을 본인 스스로도 깨달았듯, 이미 사랑에 대해서 지독히 겪어왔다. 그런 안진진은 장우와 함께 하는 낭만과 사랑보다는 영규에게서 안정감을 얻어보고자 했던 것 같다. 비록, 안정된 삶을 살아온 이모는 너무나도 안정된 나머지 정체감을 느껴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녀가 행복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이모를 보았음에도 영규를 선택했고, 그저, 이모를 닮은 엄마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경

내가 모순의 주인공 안진진이라면 나는 영규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안정감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우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과 전부 다른 사람이기에 거부감이 들었다. 먼저 계획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자책만 하며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내가 정말 싫어하고 되고 싶지 않은 인간상이었다. 반대로 영규는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은 과한 행동이지만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안진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을 것 같다. 자신의 아버지와 술을 먹으면 똑같은 행동

을 보이는 안진진은 어찌보면 자기혐오를 가지고 자신의 엄마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책의 결말처럼 이모의 죽음을 보고도 호기심 때문에 모순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민

안진진이 나영규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결혼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안진진은 유년 시절, 자신의 가정과 엄마, 그리고 이모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모를 일종의 이상으로써 보면서 살아왔고, 유년 시절부터 자리잡힌 그 감정 때문에 안정된 가정에 대한 선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영규와 김장우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안진진은 김장우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김장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결혼을 해야만 하는 적령기의 여성으로써, 안정적인 직장과 성격을 가진 나영규와 결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6-2 “이모와 엄마의 삶이 바뀌었다면?”

박*영

이모와 엄마는 결혼하기 전까진 외모 뿐만 아닌 성격까지 똑같았다. 그래서 삶이 바졌으면, 이모는 뚱어넘치는 생명력을 지니고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엄마는 권태에 지루해하며 지내다 이모처럼 생을 마감했을 것 같다.

양*지

모순을 읽고 북클럽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 이모와 엄마의 삶이 서로 바뀌었다면 그들은 책 결말과 같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 이모가 엄마의 인생처럼 가난하고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엄마가 이모의 인생처럼 여유로운 집안에서 안정적이지만 재미 없는 남편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다.

사실 처음엔 이모의 원래 성격 자체가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고 엄마는 매일 아침 배터리를 갈아끼우는 것 같은 로봇 같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모는 엄마의 상황이 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엄마는 오히려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책 속에서 보면 이모와 엄마는 결혼 전까진 외모도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 둘의 성격과 모습이 변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구절로 보아 결국 둘은 운명이 바뀌어도 똑같이 엄마는 이모처럼 견디지 못하고 죽고 이모는 온실 속 화초 대신 잡초 같은, 엄마 같은 강한 사람이 되어 견뎌냈을 것 같다.

이*호

아마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책의 이름인 모순은 무엇이든 뚫는 창과 무엇이든 막는 방패의 이야기다. 사실 창과 방패는 그 형태가 어떻든, 보통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다. 원자재는 같지만, 그 원자재를 다듬는 동안 형태가 바뀌고 그 성질을 갖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모와 엄마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남편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이어졌다. 이모와 엄마의 본질은 결국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결국, 이모와 엄마 모두 그들의 삶이 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부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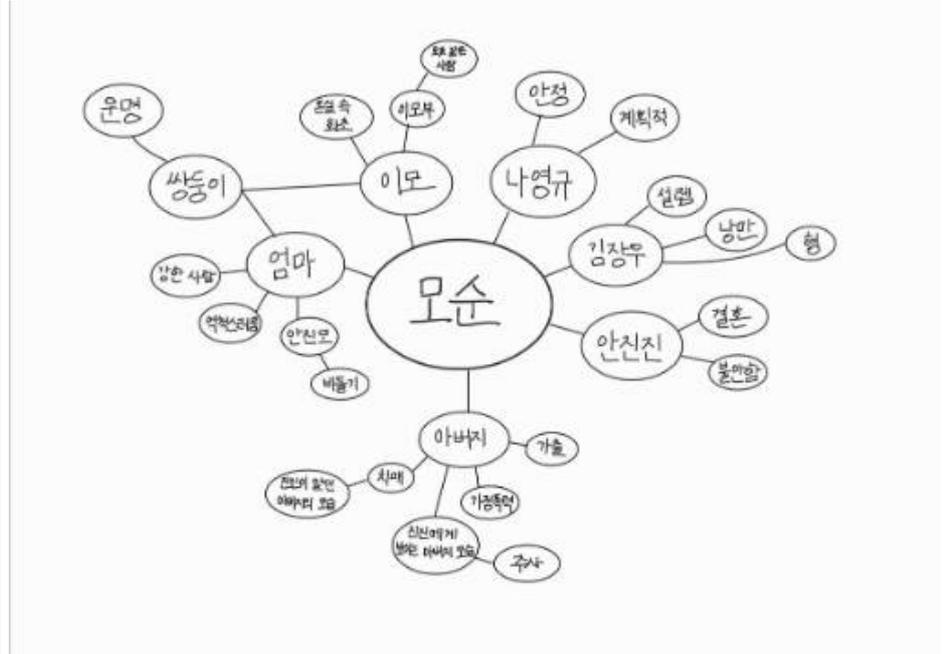
이*경

엄마와 이모는 쌍둥이로 아예 어렸을 땐 성격까지 똑같은 인물들이었기에, 이모와 엄마의 삶이 뒤바뀌었더라도 이모부를 만난 엄마는 죽고 아버지를 만난 이모는 아버지의 폭력성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운명론적이어서 안진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탐구했을 것이다.

최*민

이모와 엄마는 이전에 성격부터 외모까지 모두 똑같았다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 둘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모가 엄마처럼 살고, 엄마가 이모처럼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경우, 여러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예민해지고 강해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이모가 엄마의 상황이었어도 비슷했을 것이며, 반대로 엄마가 이모의 상황이었더라도 똑같이 여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인간의 성격적 요소를 결정하는게 태생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양*지



2023년 11월 15일

참가자대표 : 권*재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복이온앤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3****	이름	양*지	학번	2018****	이름	이*호
	학번	2021****	이름	이*경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2****	이름	최*민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810 891 1141 1370" data-label="Image"> </div> <p>추천인: 이*경</p> <p>7-1 “결여된 것”</p> <p>권*재</p> <p>멋진 신세계의 설정은 아주 흥미로웠다. 1930년대 쓰여진 이 소설에서 제시된 미래 중 지금 현실과 맞닿아있는 것들도 많다고 느꼈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지금 우리가 보아도 충분히 공감할 내용들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 이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소설과 매체를 볼</p>							

때 고민되는 것이 있다. 개인적으로 즐겨 보던 만화 “나루토”의 마지막 부분에서11 악당인 “마다라”는 “이 세상은 더이상 희망이 없으며 자신이 고안한 가상의 세계에서 행복한 꿈만 꾸며 평생 누워 지내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 실제 잠깐이나마 그 계획이 실현 돼 극 중 모든 사람들이 꿈 속에 빠져 자신들이 바랬고 원했던 이미지만을 보며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데 과연 이 삶이 나쁜 것일까?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은 다소 복잡하지만 완벽에 가까워 보인다.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신체 개조로 계급이 정해지고 태어난 이들은 각 계급에서의 삶을 긍정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불만도 없고 더욱 큰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소마”를 복용해 주말 내내 고양감에 젖어 쉬면 된다. 과연 이 삶이, 이 사회가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나는 굉장한 이질감이 들긴 하지만 “이 삶이 왜 나쁜가?”에 대한 뾰족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며칠 내내 고민할 결과 나름의 답을 냈다. 이 사회에서 결여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인 것 같다. 물론 소설 속,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모를테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소위 “문명인”들은 인간의 기본이자 본능인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자유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선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모든 사람은 다른 주체의 간섭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인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과 행동에 대한 자유를 박탈한다. 과연 이러한 삶이 행복이라는 가치에 맞는 사회일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 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형언할 수 o벗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물론 개인은 불완전하고 항상 수많은 위험과 고통으로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나의 신체와 정신을 구속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멋진 신세계에서 정도는 아니지만,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권위주의와 관료제 사회가, 일률적인 생활 방식과 개성이 없어지는 일상이, 나의 생각이 점점 조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배웠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게 국가는 위성국가 정도의 거리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양*지

멋진 신세계 속 세상은 알파부터 엡실론까지 계급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 알파는 엡실론의 외모를 보며 혐오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고, 엡실론은 태어나기 전부터 공부 등 머리 쓰는 일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본인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멋진 신세계 속 완벽하게만 보이는 세상에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자유와 결정권이 떠

올랐다. 이 세계 속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이 될 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할 지 선택할 수 없으며 그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신체 개조되어 주어진 계급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유'롭게 내가 무엇을 하며 살 지 선택할 '결정권'은 전혀 없는 것이다. 앞서 말했 듯 태어나기 전부터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신체 개조, 정신 교육을 하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 결정권 필요의 이유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재 비교적 자유가 있다고 여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나의 시선으로는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만인 존이 총통에게 다양한 권리에 대해 외치는 장면과 결말 부분을 통해 이런 자유와 결정권을 원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는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찌 보면 사회의 시선이나 여러 규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 세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자유가 제거된 세상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우며,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책이었다.

이*호

-결여된 것-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에서 결여된 것은 "결여" 그 자체이다. 멋진 신세계의 인구는 결여된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책 후반부에 등장하는 각종 질병을 걸릴 권리에 대해 이미 이 세계관의 인구는 질병에 대해 무지한 상태 속에서 그것에 대한 면역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족함, 불만족스러움의 결여를 갖게 된다. 이러한 말은 어찌 본다면 유토피아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움의 결여에는 자유의지의 결여 역시 동반된다. 그러한 자유의지의 결여에서 오는 불만족스러움 역시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여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결여의 결여이다. 심지어는 감정마저 '소마'라는 물질로 조절하며 행복감의 결여마저 통제한다.

물론 나 역시 본 세계관에 속한다면 이것에 대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쾌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 세계에 속하지 않았으며, 지금 나의 시각에서 바라본 멋진 신세계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결여" 그 자체이다.

세계는 불완전하다. 불완전성이 있기에, 완전해보이는 것이 '멋진' 것이다. 가치는 희소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완전한 세계는 어떠한가. 좋고 싫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완전한 좋음만이 존재하는 세계. 이런 세계의 행복은 최소한 좋고 싫음이 양립하는 세계보다 실감할 행복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경

멋진 신세계를 읽고 소설 속의 세계관처럼 과학,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세상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행복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전부인데, 1930년에 이 책을 쓴 올더스 헉슬리의 미래세상은 왜 알파부터 엡실론까지 나누고 그 사람들을 4s 정책으로 의미가 없는 존재 기계 같은 존재로 그린 것일까? 전 제 생각을 부정하는 이 소설 속 세상의 완벽함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결여된 것은 무엇일까요?

난자를 싹을 틔어 노동만 할 수 있게 만든 96명의 엡실론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저의 오만한 생각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엡실론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노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알파들의 정치나 머리를 사용하는 문제들을 불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정 행복으로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야만인 존의 마지막 외침인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권리,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권리를 총통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이 세계의 결여점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속에선 희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불완전하기에 완벽한 인간인데,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란 우리가 정하고 부여하는 것인데, 내 스스로 주체성이 있지 않고 완전함을 띠다면 우리는 거기서 불쾌감을 느끼고 결여를 느낍니다.

불완전하기에 행복한 우리는 그 모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희생을 하며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며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가치들과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최*민

멋진 신세계 속 사람들은 현재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며, 동시에 결여된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상향' 속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결여된 것을 깨닫는다면 손쉽게 무너져버릴 행복일 뿐이다. 이들의 결여는 그저 쉬운 통제를 위한 문제 요인 제거에 불과하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이들은 제한된 행복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사육당하길 자처하는 것인데, 이들을 여전히 인간으로써 볼 수 있을까?

이들은 그저 가축에 불과하다. 총통의 손쉬운 통제를 위한, 이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재 적소에 맞춰 개량해 낸, '인간'이라는 명칭의 가축들일 뿐. 결국, 이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은 인간성과 존엄성이다. 아까 던진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져보겠다. 이들을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는 일종의, 인간이라는 종의 진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진화시키며 존엄성과 인간성을 내려놓은 새로운 종족인 셈이다.

2023년 11월 22일

참가자대표 : 권*재